

독서회) who? 로자 룩셈부르크

명량공주



로자 룩셈부르크 책을 읽었습니다.
로자는 원래 어릴때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어서 밖에 거의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서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부모형제와 편지를 돌려서 글을 잘 쓸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자는 원래 이름은 로잘리아 였는데 독일식으로 바꾸는것을 보고 로자가 대국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레오를 만났는데 역시나 레오는 부자였습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이나 딸기맨이나 스톤에이지나 앵겔스를 보면서 사회주의 운동도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자본주의의 냉담한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로자는 레오랑 토론하면서 친해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 필수 코스인 감빵도 갔다가 형제들이 뇌물로 꺼내주면서 형제사이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민당에 들어가서 연설을 열심히 해서 사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민당이 세계대전 참가하면서 로자를 팽시키자 로자는 화가나서 스파르타쿠스단을 일으켰지만 결국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역시 개량은 잡아죽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사회주의는 훌륭한 사람들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